

2020년 08월 가정통신문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들을 사랑과 정성을 다해 모시는 사랑채주야간보호센터입니다.

잘 익은 포도처럼 달콤한 여름 잘 보내시고 있으세요?

역시 8월은 태양의 계절입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만나면 그렇게 반갑고, 시원한 대화를 나누시면서 우리 어르신들은 잘 지내고 계십니다.

"삼복기간에는 입술에 묻은 밥알도 무겁다"라는 속담이 있지요.

더운 삼복에도 몸을 움직이기 몹시 힘들어 밥알의 무게조차 힘겹다는 뜻입니다.

삼복 더위기간에 특히 코로나 때문에 더운 날씨 마스크 까지 끼고 있으니 어르신들도 많이 힘들어하시고 지쳐 계시지만 더위를 이겨내시기 위해 보양식 드시며 건강한 여름나세요.

※ 인지기능 프로그램 ※

: 빙고게임, 농구게임, 컵 쌓기 놀이, 사자 만들기, 접시 체조, 포도송이 만들기, 손바닥 짹짹 놀이, 탁구공 옮기기 놀이, 행운을 잡아라, 색 맞추기, 꽃송이 꾸미기, 동전 던지기, 낙엽모자이크 색칠, 셀로판지 물고기 표현

◆ 센터 소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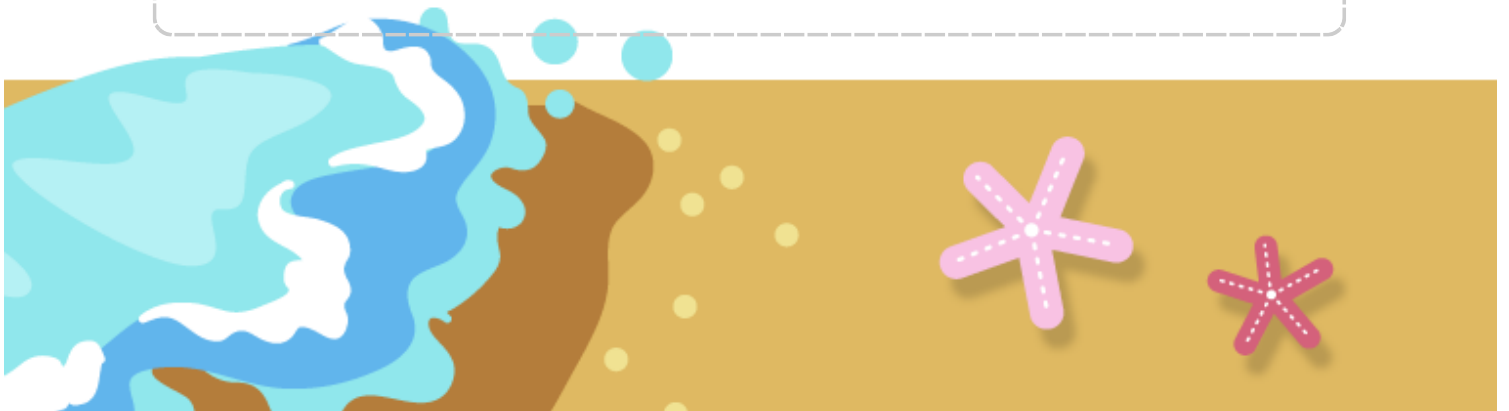
사랑채주야간보호센터 코로나19 예방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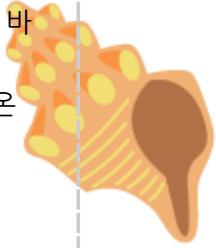
- 수급자 입소 시, 센터 내 생활 시 마스크 착용 철저 관리
- 센터 및 차량 내 소독제 비치, 방역 실시
- 수급자 체온 측정 및 컨디션 관찰
- 종사자 출근 시 체온 측정
- 센터 내 손잡이 및 물품 수시 소독 실시 / 실내 환기
- 에어컨 청소 및 점검

◆ 8월 행사 ◆

- 말복, 치킨 주문 할 예정

◆ 공지사항 ◆



- 
- 가정에서도 외부활동 자제하시고, 입소 전 발열 및 감기증상 발현 시 연락부탁드립니다.
 - 센터에서도 여름철 탈수 예방을 위한 수분섭취를 신경쓸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 센터내에서 에어컨 가동으로 기온을 조절하고 있으나 수급자마다 체질이 다르고 느끼시는 기온이 달라 얇은 겉옷을 보내주시면 센터에 두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